

“제값 받는 중소기업, 성장하는 AI” 조달청, 민생 살리고 미래 연다

- 2026년 5월 26일부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4개의 행정규칙 개정안 시행
- 물품·용역분야 낙찰하한율 상향(2%p), 인공지능(AI)제품 가점 신설 등

조달청(청장 백승보)은 물품·용역분야 **낙찰하한율을 2%p 높이고**, 인공지능(AI) 제품에 대해 **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'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'을 포함한 4개 행정규칙***을 개정하여 5월 26일부터 시행(AI 제품 가점은 8월 시행)한다고 밝혔다.

* ①「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」, ②「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」, ③「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」, ④「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」

이번 개정안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치로 **새정부 국정과제 이행**을 위해 마련되었으며,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◆ 물품·용역분야 낙찰하한율 2%p 상향

공공계약 물품·용역분야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**낙찰하한율을 일괄 2%p 상향**하여 적정대가를 보장하고,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**‘제값 받는 환경’**을 구축한다.

* 공사 분야는 전 구간 낙찰하한율을 2%p 상향하여 올해 1월 30일부터 이미 시행 중

◆ 인공지능(AI) 적용 제품 신인도 가점(1.5점) 신설

국내 AI 기술의 자생력을 높이고 공공 AI 시장을 **활성화**하기 위해 AI 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**신인도 가점(1.5점)**을 새롭게 도입한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**‘인공지능 제품’ 확인 주체와 방법이 규정**되는 시점에 맞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.

◆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기준 보완

고용대비 장기재직자 비율을 평가하는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(물품·일반용역) 기준*을 개선하여, 가점을 얻기 위해 **인위적으로 전체 고용 인원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**하고, **실질적인 고용의 질이 향상**되도록 바로잡았다.

*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최근 고용인원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

백승보 조달청장은 "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맘 흘리는 중소기업들이 **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**를 받도록 하면서, 우리 삶의 미래를 바꿀 **AI 기업들이 공공시장을 발판 삼아 세계적인 경쟁력**을 갖추도록 돕는 지원책"이라며,

"공공조달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**공정하고 건강한 조달 생태계**를 만들어 가겠다"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	책임자
		담당자
	기술서비스국 기술서비스총괄과	책임자
		담당자
	기술서비스국 건설기술용역과	책임자
		담당자

분야별 적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을 개정(안)

분 야 (적용기준)	규 모 (추정 가격)		적격심사 통과점수	낙찰하한율	
				현행	개정(안)
일반물품	고시금액(2.3억원) 미만(제조·구매)		85점	84.245%	86.245%
	고시금액(2.3억원) 이상(제조·구매)			80.495%	82.495%
일반용역	시설분야 (시설물 청소·경비·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)		85점	87.995%	89.995%
	학술연구용역 SW용역(일반), 폐기물처리용역, 화물육상운송용역, 수리·점검용역, 임대차, 수요기관 지정형	고시금액(2.3억원) 미만		84.245%	86.245%
		고시금액(2.3억원) 이상		80.495%	82.495%
기술용역	10억원 이상		92점	79.995%	81.995%
	5억 ~ 10억원 미만		95점	85.495%	87.495%
	고시금액(2.3억원) ~ 5억원 미만			86.745%	88.745%
	고시금액(2.3억원) 미만			87.745%	89.745%

* 공사 분야는 쉼 구간 낙찰하한율을 2%p 상향하여 '26.1.30일부터 시행